

江湖九歌

羅緯素

강호구가

나위소

其一

아버이 나흔셔늘 넘금이 먹이시니
나흔德(덕) 먹인恩(은) 다 갹프랴 헛엇더니
倏然(숙연)히 七十(칠십)이무니 헛일 업서 헛노라

其二

어의 聖恩(성은)이야 罔極(망극)홀슨 聖恩(성은)이다
江湖(강호) 安老(안로)도 分(분) 맞기 일이어든
헛물며 두아들 專城榮養(전성영양)은 쏘어인가 헛노라

其三

煙霞(연하)의 김피곤 病藥(병약)이 效驗(효험)업서
江湖(강호)에 브리연더 十年(십년) 맞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디 못죽음도 聖恩(성은)인가 헛노라

其四

전나귀 맞비 모리 다 점은날 오신 손님
보리피 구즌 패예 饌物(찬물)이 아조 없다
아희야 빅내여 썩워라 그물 노하 보리라

1.

아버이 나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나으신 덕 먹이신 은혜 다 갹으려 하엿더니
홀연히 칠십이 넘으니 어이할까 하노라.

2.

어와 성은이야, 망극하니 성은이다
강호에서 늙어감도 분수 밖의 일이거든
하물며 두 아들 봉양은 또 어이인가 하노라.

3.

산수에 깊이 들어 병에 약이 효험 없어
강호에 버려진 지 십년이 넘었어라.
그러나 이제 못 죽음도 성은인가 하노라.

4.

저는 나귀 바삐 몰아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껍질 거친 밥에 반찬도 아주 없네.
아이야,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

* 專城榮養 : 정성을 다해 봉양함. 성(城)은 성(誠)의 오기인
듯함.

* 병 : 자연을 사랑하여 든 마음의 병, 연하고질(煙霞痼疾)

其五

달 밝고 바람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短艇(단정)을 빙기 노하 오락가락 흥(흥)을
白鷗(백구)야 하즐겨말고려 世上(세상)알가 흥노라

其六

모래 우회 자는 白鷗(백구) 閑暇(한가)홀샤
江湖(강호) 風趣(풍취)를 내디닐씨 내디닐씨
夕陽(석양)의 半帆歸興(반범귀흥)은 너도말만 못히리라

其七

ㄴ느비 빙긴 바람 낫대맨 더 하나바
네 生涯(생애) 언마치라 슈고롬도 슈물샤
生涯(생애)를 爲(위)호미아니라 漁興(어흥)계워 흥노라

其八

피燒酒(소주) 무저리 우웁다 어른 待接(대접)
늬은 저닐은 말이 草草(초초)타 흥거마는
두어라 니도 내 分(분)이니 分內事(분내사)닌가 흥노라

其九

食祿(식록)을 굿친 後(후)로 漁釣(어조)를 生涯(생애)히니
험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흥건마는
두어라 江湖閑適(강호한적)이 이내 分(분)인가 흥노라

5.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이라.
작은 배를 비껴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을
백구야, 너무 즐겨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6.

모래 위에 자는 백구 한가하다
강호의 풍치가 네 것인가 내 것인가
석양에 돌아오는 흥이야 너도 말로 못하
리라.

7.

가는 비 빙긴 바람 낚싯대 맨 저 할아비
네 생애 언제 마치라 수고도 수고로다.
생애를 위함이 아니라 어부 흥을 즐기노라.

8.

피소주 무겉저리 우습구나 어른 대접
남들이 이르기를 초라하다 하건마는
두어라, 이도 내 분수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9.

벼슬을 마친 후에 낚시로 살아가니
생각 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마는
두어라 강호에 한가하니 내 분수인가 하
노라.

* 반범 : 돛을 반만 내림

* 피소주 : 기장으로 담근 소주.

* 분내사 : 자신의 분수에 맞는 한도의 일